

# 월정사 탐돌이 대중에게 다가간다

문화재 지정 위한 본격 홍보 나서...14일 시연, 대중성 강화 밝혀

평창 월정사(주지 정법)가 '월정사 탐돌이' 문화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월정사는 지난해 '월정사탐돌이보존회'를 설립하고 학술심포지엄과 세미나, 월례 탐돌이 시연 등을 진행한 데 이어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월정사 탐돌이의 학술적·이론적 토대가 구축됐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월정사의 이 같은 움직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지역문화 저변 확대 및 콘텐츠 개발의 일환이다. 월정사는 문화재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의 제자리 찾기 운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월정사와 탐돌이보존회는 먼저 월정사 탐돌이의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에 힘을 쏟는다. 2월 14일에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국보 제48호)에서 '갑오년 정월보름 탐돌이'가 진행됐다. 이날 탐돌이는 불교적인 의식과 함께 법배, 바라루, 승무 공연은 물론 농악놀이까지 다양한 장르가 선보였다.

행사에는 월정사·상원사·지장암·육수암 등 스님 70명, 탐돌이보존회 회원 75명, 지역 청년회 35명, 농악대 30명, 월정사불교문화대학 16명, 일반인 30명 등 모두 256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한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보존회는 앞으로 이날 선보인 월정사 탐돌이의 각 과장을 현대적인 콘텐츠를 가미하고 연희적인 요소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오정임 월정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원은 "월정사 탐돌이의 구성을 더욱 세분화해 원형 재현에 가깝게 구성했다"며 "향후 대중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등 연출적인 부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월정사 탐돌이는 무엇?

'월정사 탐돌이'는 월정사 8각구층석탑(국보 제48호)을 중심으로 행해지던 민속화된 불교의식이다. 월정사가 '월정사 탐돌이'의 문화재 지정에 나서고 있는 것은 월정사 탐돌이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월정사 측은 "월정사 탐돌이의 전승을



국보 제48호 월정사 8각구층석탑에서 진행되는 탐돌이 모습. 탐돌이 이후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불교 문화재원은 '영산재(靈山齋·제50호)'와 '연등회(燃燈會·제122호)' 등으로 불교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월정사 탐돌이의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문가들은 꾸준히 탐돌이가 진행되는 곳은 월정사가 거의 유일하고, 8각구층석탑과 석조보살좌상 등의 가치도 충분한 만큼 문화재 지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다. 이를 위해 적당한 한계와 범위 안에서 월정사 탐돌이의 '원형(原形)'을 살리고 '변용(變容)'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용덕 한양대 교수는 "문화재 지정이 월정사의 탐돌이 전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환경이 된다"며 "창의적인 전승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원형과 변용' 그 경계의 허용 범위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청소년리더십캠프



한국불교의 미래인 청소년불자들을 위한 불교캠프가 개최됐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2월 8일~9일 양일간 중식사와 무등산 일대에서 '제1회 청소년리더십캠프'를 개최했다. 4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8일 오후 2시 입재식을 시작으로 레크레이션, 지장스님의 리더십 강의(부타의 리더십), 예불, 리더십 강의(미국 7000km 자전거로 횡단한 24세 청년 박형중), 자신의 장점과 미래설계 등이 진행됐다.

행사의 두 번째 날은 기상과 함께 예불, 108배 절명상, 주먹밥 만들기 등 함께 무등

산 중추가 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첫 번째 강연을 진행한 지장스님은 행복명상이라는 주제를 통해 서로에게 따뜻하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고 파트너에게 사랑을 올리고 '행복하라'며 안아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미국을 자전거 횡단한 박형중씨는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자신만의 삶의 길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이날 박형중씨는 84일간 500만원으로 미국 자전거 횡단을 한 이야기를 들려줘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광주전남 포교사단, 5·18묘역 염불봉사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영령을 위한 염불의식이 봉행됐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김정연)은 2월 15일 광주광역시 동 제3묘역(구 518묘역)에서 민주영령들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장엄염불의식을 봉행했다.

이날 염불의식은 보성 대원사 현장스님의 의식진행으로 한경자 포교사의 살풀이, 장엄염불의식, 인사말, 법문, 반야심경이

봉독됐다. 현장 스님은 법문을 통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함께 5.18민주영령들의 참의미를 생각하고 실천해 나아가 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단은 이날 첫 5.18묘역 염불봉사에 이어 매월 1회씩 지역단 주최로 진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익산 정각사, 선지식 초청법회 봉행

암도 스님 첫 법사로 나서, 지역포교 구심점에서 마련



익산 정각사(주지 일행)는 2월 14일 33명의 선지식을 초청해 법문을 청하는 '33 선지식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지역 불자들의 활발한 신행활동과 지역 불교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초청법회의 첫 법사로는 조계종 원로위원 암도 스님이 나섰다. 스님은 '참 나를 찾아서'를 주제로 법석을 열었다.

암도 스님은 법문에서 "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사람운동"이라며 "참 사람은 정직해야 하고 신·구·의 삼업의 청정을 통해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참선, 기도, 절 수행을 통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하고 중생심을 버리고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해탈의 경지

로 나아가길 것"을 당부했다.

일행 스님은 33선지식 초청법회를 시작하는 인사말로 "작은 시골 마을의 불자들이 이 시대 어른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활발한 신행생활을 이어가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초청법회를 마련했다"며 "지속적으로 선지식을 초청해 신행행증의 근본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청법회 후에는 신도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를 개최해 가족의 건강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익산시 오산면에 자리한 정각사는 스님과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직접 농사를 지으며 판매수익금으로 열악한 재정형편을 극복하는 작은 사찰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선운사, 삼장지장 선양운동 펼친다

15일 지장보궁 천일 지장기도 입재, 700여 대중동참 발원



천장, 지지, 인장의 삼장지장보살 기도 성지인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에서 1,000일만에 걸친 기도정진이 진행된다.

선운사는 2월 15일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서울, 울산, 부산, 경북 의성 등 전국각지에서 운집한 사부대중 7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천일지장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법만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선운사는 도솔암의 천장 지장보살, 선운사 지장보궁의 지지 지장보살, 참담암의 인장 지장보살이 상주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삼장지장기도 도량이다"고 소개하고 "삼장 지장보살 선양운동을 통해 수행과 복지,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운사 원로 재공 스님은 입재법어를 통해 "기도의 시작은 참회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지난날들의 악업을 참회하지 않고 복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강조했다.

입재식을 마친 사부대중은 도솔천에 약 3천수의 치어를 방생해 지장보살의 생명 존중 사상을 되새겼다. 선운사는 이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천일간 지장기도 정진에 들어갔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철야정진을 지속한다. 매 100일마다 선망영가들을 위한 영산작법 스님들이 주관하는 천도제가 봉행된다. 도솔암에서도 하루 16시간동안 8분정진에 이어 주말마다 철야정진이 계속된다. 선운사는 지난 1월 천일관음정진기도를 회향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군산 흥천사, 자비의 쌀 나눔 실천

군산 흥천사(주지 법희)가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10년 넘게 군산 화물역전의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도 펼쳐오고 있는 흥천사는 2월 20일 90만원 상당의 자비의 쌀 30포대를 관내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 경로당 등에 전달했다.

법희스님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자비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행의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비의 쌀을 전달받은 김금란 해신동장은 "경기침체로 이웃들끼리 따뜻한 정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매년 잊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어 감사하다"며 "스님과 신도들의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교직자양성전문강원

## 2014(불기 2558)학년도 상원사 부설 삼학불교강원 학인모집 안내

사정상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에 뜻을 두고 있는 불자 및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전문 강원 과정의 교육을 개설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 교과과정안내

과정	교육기간	교과목		강의요일	강의시간	비고
		1학기(5개월)	2학기(5개월)			
치문반	1년	초발심자경문 승가율의	치문	매주 월, 화	*1교시 : 오후 6:00 ~ 오후 7:30 *2교시 : 오후 7:40 ~ 오후 9:10	2014년도 개강
사집반	1년	도서, 선요	서장	목, 금		2015년도 개강
사교반	2년	금강경오가해 대승기신론	대승백법명문론 / 원각경 능엄경	목, 금		

상원사 주지 강법정  
삼학강원 강주 박도종 합장

#### ◆ 모집인원 : 00명

◆ 개강일시 : 2014년 3월 13일(목요일) 개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진 2매

◆ 수 강 료 : 1학기당 40만원

◆ 접수문의 : ☎ 02)833-0374, 833-0375  
Fax, 02)834-0789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1028~4

☞ 찾아오는 길 ① 전철 2호선 8번 출구 → 대동초등학교 → 관악농협 맞은편  
② 전철 7호선 11번 출구 → 대동초등학교 → 관악농협 맞은편

◆ 한문이 익숙하지 못한 분이라도 낱자를 잡아 강의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본 강원은 초종파 강원으로 불교를 알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